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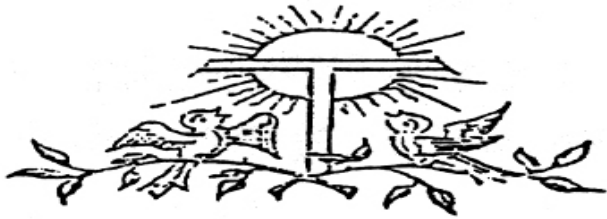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7-04호 2007년 4월 15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웹사이트: kr.blog.yahoo.com/bonasfo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하느님 나라 건설

선지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것으로 건설하도록 불리운 회원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크리스천의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해야 한다.

- 회칙 제14조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완성을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노력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몫이며 또한 재속프란치스코회가 일궈내야 하는 과제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보편적인 형제애와 복음의 정신을 교회와 사회 안에 실현하라는 불림을 받았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봉사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며, 이는 회원과 형제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 재속프란치스코회는 처해진 환경 속에서 형제애와 복음의 정신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을 힘껏 완수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한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음적인 생활을 하도록 부르신 주님! 저희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시어 선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스스로 더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섬김과 봉사 정신으로 자신의 책임을 힘껏 완수하여 세상을 더욱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당신 영신 생활의 기초로 삼으셨다.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프란치스코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이시며 하느님이신 분을 실제로 보았으며, 그분을 가장 거룩하신 인간으로 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잘 보고 더욱 가깝게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과 행적은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인간이신 예수를 만나게 한다. 예수께서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최고의 모델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마태 5,48)고 하신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행실로써 그 열매를 맺는 것은 회원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의 복음화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만 있지 않다.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상을 볼 것이며 형제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형제의 사랑으로 대할 때, 비로써 세상은 형제적이고 복음적인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2면에 계속



## “ 부활의 기쁨 ”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차게 한다. 우리가 알렐루야("주님께 찬미드리자"라는 뜻)를 노래부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현존하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라쁘니"(히브리어 말로 '선생님'이란 뜻) 하고 기쁨에 차서 외치던 말을 듣게 된다. 선생님이라 부른 것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가. 왜냐 하면 예수님은 그녀에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어떻게 그녀가 사랑으로 성부께 응답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그분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 또한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 찼겠는가! 토마스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쳤을 때, 분명히 모든 기쁨의 감정을 표출해낸 것이다.

부활은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 모든 희망과 기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쁜 때인 것이다. 부활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살아계신 것에 의해 우리의 나그네 삶에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크게 기꺼워해야 할 때이다. 닥쳐오는 모든 삶의 과정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된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한 그리스도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십자가 처형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너무 오래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발산하는데 너무 더디지는 않았는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영원히 무아경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약점, 잘못,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각하는데서 오는, 그러한 내적인 평화와 행복이다. 예수님은 수난이 기쁨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보여주시려고 애쓰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에 잠길 지라도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마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귀기울여보자.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언제나 예수께 맞춰진다면,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분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을 것이다.

- 데이비드 로시지

###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하느님께서 다미아노 성당에서 프란치스코를 통해 들려주신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는 말씀은 어느 시기에나 프란치스코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명이지만, 현대 교회에서 더욱 큰 소명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망하게 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회원은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노력에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화이고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다. 재속프란치스코는 언제나 쇄신되어야 할 사회와 교회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

-양성 교재 폰테 콜롬보에서

##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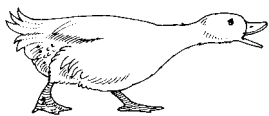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고 냉정한 마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은  
사랑과 자비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내면의 수행이 뒤따르지  
않는 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편안한 환경 속에서  
지내더라도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기쁨과 행복을  
절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 달라이 라마, '행복론' 중에서 -



## 정말로 ....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데이페가 어느 축제의  
행렬을 구경하고 싶어서 옷 투정을 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시치미를 딱 떴면서  
"당신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 지는 법

지는 것을 배우는 과정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으면 강요당한 자기상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부정만이 자기 긍정의 유일한 길인 셈이다.

그 길이 어둡고 외롭다고 회피할 때

남은 선택은 비굴한 변절 아니면 죽음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이나 한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의 변절은 어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다.

모든 비극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받은 상처조차도  
함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기억과 연상을 통해 머리카락이나 심장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몸으로 해야 하는 체험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한몸이 될 수 없는 한, 상처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더구나 진정한 상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상흔을 껴안고 자기 부정을 감행한 사람만이  
타인과 몸으로 만날 수 있다.

모든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다. 관계가  
깊어지면 상처도 깊어진다.

그래서인가 나이가 많을수록 얽은 형식적 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삶의 지혜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몸으로 함께하는 만남과 소통을 처음부터 포기한  
이들에게 사랑이 찾아올 수 없으며 그 덕에 상처도  
없을 것이다.

남은 것은 딱 짜인 기능적 연관관계 뿐이다.

부모와 자식, 선생과 학생, 남편과 아내,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자본가와 노동자만 있고 사람은 없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만 있을 뿐

삶의 의미와 자유는 없다.

상처받지 않으려 한쪽은 권위를 앞세우고,

다른 쪽은 생각을 멈춘다.

지는 것을 모르는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한  
이유다.

-박용구 -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5월 26-28일 메모리알데이 캠핑(웨난도)에  
가실 분들은 4월 월례회때까지 회비 \$120을  
조로사 회계한테 내시기 바랍니다.

✦ 우리 형제회 서약 피정이 7월 1일(일)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있겠습니다.

장소: Priestfield Pastoral Center  
4030 Middleway Pike  
Kearneysville, WV 25430

✦ 정정하겠습니다. 7월 3-8일 피츠버그 국가  
형제회 피정비는 5월 10일까지 등록하시면  
\$260입니다(참가비\$110 식비\$150). (5월  
10일 이후 등록시 \$300). 호텔 특별 할인가  
(1일 \$74/1방 4명 취침가능). 4월 월례회까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 The Radisson Hotel Pittsburgh Green Tree  
101 Radisson Dr., Pittsburgh, PA 15205  
412-922-8400 (호텔)

✦ 8월부터 새 지원반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주위에 프란치스코 3회에 성소가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을 보시면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4월 월례회 시간표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3:00 PM - 월례회/신부님 강론  
미사 / 공지사항

### ✦ 미사성가: 지침서 ✦

입당: 13번 주를 찬미하여라  
봉헌: 32번 평화를 주옵소서  
성체: 42번 천사의 양식  
마침: 85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제1독서: 궤로사 제2독서: 궤토마스아퀴나스  
미사해설: 조마리아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4월 27일: 김안티모 OFM

\*지난달 월보 본명축일 축하난에 세라피나  
자매의 본명축일이(3월12일) 빠졌습니다.  
다시 축하드리며 죄송합니다.

### 간식담당

4월: 김운옥, 조로사, 지요한  
5월: 강말가리다, 강요한,  
강스텔라



###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6월 총선을 위해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와 회원 가족들을 위해 ...
- ✦ 7월에 서약/유기/입회하실 분들을 위해 ...
- ✦ 지원반의 제노베과 자매의 오빠 박아오스팅  
형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
- ✦ 마리안나 자매의 남편 김웅영 안드레아  
형제의 장례식이 13일 있었습니다 ...
- ✦ 세계의 평화를 위해 ...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태승 안티모 OFM kantimo@hotmail.com